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4. 24. / (총 8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홍 승 령 김 영 은	전 화	044-202-3575 044-202-380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담 당 자	양 윤 석 황 지 민	전 화	044-202-3155 044-202-3804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조 명 연 정 희 권	전 화	044-203-6877 044-203-654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리지원반 긴급대응팀	팀 장 담 당 자	오 준 혁 조 총 래	전 화	044-205-6520 044-205-65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생활 속 거리 두기 분야별 세부 지침 공개 ▲코로나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사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분야별 세부 지침 공개, ▲코로나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사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생활방역 이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행정명령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하고 선거일에 사용한 비접촉 체온계 등을 민간에 신속히 배포해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생활방역 이행과 등교를 논의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 경제활동 활성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 정부의 책임 의식과 노력은 더 커져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고,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1 생활 속 거리 두기 분야별 세부 지침(초안) 공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하였다.
- 지난 4월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발표한 이후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며, 이후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을 거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 세부지침은 ①일상과 방역의 조화, ②학습과 참여, ③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각 세부지침은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구분하였다.
- 총 12개 부처에서 31개의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며, 국민의 삶을 꼼꼼히 망라하고자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하였다.

< 집단방역 보조(부처별 세부지침) 구성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업무(4)	일할 때	사무실(직장), 회의, 민원창구, 우체국
일상(10)	이동할 때	대중교통
	식사할 때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공부할 때	도서관, 학원·독서실 등
	쇼핑할 때	대형유통시설(백화점, 마트 등), 전통시장, 중소슈퍼
	특별한 날	결혼식 등 가족행사, 장례식
	종교생활	종교시설
여가(17)	여행할 때	호텔·콘도, 유원시설, 야영장, 동물원, 국립공원,
	여가 등	야외활동, 공중화장실 등, 이·미용업, 목욕업, 공연장, 영화상영관, 미술관·박물관, 야구장·축구장,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PC방, 유흥업소

- 오늘 공개한 초안은 향후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세부지침 공개는 ‘발표’보다는 ‘의견수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상과 방역원칙의 적정 균형이 핵심인바,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 생각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및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에 맞추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 코로나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급 학교의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이번 점검 이전에는 등교수업 전·후 준비사항, 의사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 ‘학교 방역 준비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3.24)해 학교별로 등교에 대비해 방역을 준비토록 했다.
- 각급 학교별로 대응 체계 수립, 방역 환경, 교육 활동 조정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99% 이상 대다수 학교가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것을 확인했으며, 일부는 보완 조치를 하도록 했다.

* 각급학교 20,445교(유치원 8,374, 초·중·고 12,071) 전수조사 결과 (4.23 기준)

- 특히 학교시설 특별소독, 교실 책상 거리 두기, 체온계 구비 등 방역 환경과 등교 시 발열 검사 준비, 혼잡최소화를 위한 수업·급식 시간 차별화 등 교육 활동 조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 이 밖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할 손 세정제 및 소독제와 보건용 마스크 비축, 증상자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설치,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지역별로 실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등교 2주 전부터 시작 이후까지 단계별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 준비실태를 매주 전수점검하고 보완하여,
- 등교를 재개한 이후에 학교 안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3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자가격리자 수는 해외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시행(4.1.) 후 급격히 증가했으나 4월 14일 6만여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4월 22일 기준으로 4만 6000여 명 수준이다.
- 대부분 격리자는 격리지침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관리 노력을 기울여 4월 1일 이후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가격리 관리강화를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여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 안심밴드 시행일(4.27)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한다.
-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 안심밴드 신규 도입과 함께, 기존에 자가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 개선도 이루어진다.
-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 또한 GIS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 아울러 전화를 통한 격리자 건강 상태 확인을 현재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현재 관리 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해외 입국단계에서 핸드폰 미소지자에게는 임대폰·저가폰을 통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를 유도한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별첨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초안)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붙임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2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